

現代獨文學에 그려진 人間像(VII)*

—Martin Walser 作品을 中心으로—

金 哲 子

(독문과 교수)

I. M. Walser의 生涯와 書評

여기서는 現在 西獨의 중견작가의 한 사람인 Martin Walser의 重要 作品들을 人間像 研究를 中心으로 考察하기로 한다. Walser는 드물게도 小說과 드라마를 번갈아 쓸 수 있는 作家이다. 그의 小說은 生存경쟁의 고통과 갈등을 겪는 中流市民社會에 속한 個人의 意識(Bewußtsein)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드라마는 주로 이 계층의 個人들이 겪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 즉 外部의 문제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 論文은 Walser 作品에 나타난 人間像 研究이기 때문에 人間內面的의 문제를 다루는 그의 小說들을 주로 취급하기로 한다. Walser의 作品이 반복하여 다른 여건에서 계속 문제로 묘사하고 있는 핵심은 個人의 自負心, 自意識문제이다. Walser가 人生을 보는 重要視角은 社會가 個人의 自意識을 얼마만큼 보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 1967年 <Spiegel> 잡지에 다음과 같은 Walser의 重要關心事를 명료하게 表現한 대목이 있다: “이 정당들은 이 나라 시민들에게 약간의 그 自意識을 가능케 하는데 있어서 그 외에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¹⁾ 이같은 문제를 계속 다룬 상황에서 취급하고 있는 Walser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要因의 하나는 어린시절 그의 부친과 부친이 겪어야 했던 生存경쟁의 갈등 그것이었다. 그때문에 “Walser 作品의 理解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어린 時節의 가정적 경험을 모르고는 곤란하다.

Walser는 1927年 南獨 Bodensee 부근인 Wasserburg에서 주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學生時節은 第二次大戰으로 히틀러의 최후소집부대에 입대함으로써 한 때 중단되었으며, 또한 그의 大學時節도 화폐개혁으로 인해서 모친의 학비조달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방송국에 취업하기 위해 중단된 적이 있다. 그는 이미 11歲 때도 부친을 잃고 두살위인 兄과 함께 고용인도 없이 어머니가 경영하는 연탄가게일을 도와야 했으므로 一年에 36일은 항상 연탄배달일로 학교를 쉬어야 했다. 이 일 때문에 교장의 꾸지람과 함께 어린 마음에 자부심을 몹시 상하게 하는 고통을 겪었다. 그는 이처럼 어린 나이에 먹기 위해서 일해야

* 1987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결과 보고임.

1) “...Was tun die Parteien sonst noch, um dem Bürger dieses Staats ein wenig Selbstbewußtsein zu ermöglichen?” In: Spiegel, 1967.

하는 중산계급의 자녀들이 받는 劣等意識과 自意識喪失의 상처를 안고 자라났다. Walser의 告白에 依하면, 그의 모친은 매우 진실한 카톨릭信者였고 카톨릭적 신앙생활의 분위기에 보호 양육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Walser에게 카톨릭의 기독교 신앙경험은 단지 儀式的인 宗教心, 즉 一般的인 人間的 宗教心の 形式的인 것에 불과했음을 간파할 수 있다. 後에 Walser는 기독교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K. 맑스를 선택했다. 그가 人生을 보는 觀點과 價値觀은 전혀 기독교의 그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重生한 사람은 世上의 부귀나 권세 앞에 열등의식이 없고, 하늘나라를 알고 상속받은 神의 子女됨의 身分과 使命으로써 感謝와 새로운 자부심을 부여받는다. 예수의 그 큰 사랑과 거룩한 새 生命을 맞보기 때문에 모든 환경적 상처와 열등의식을 깨끗이 치료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體驗하기 때문에, 더 以上 利己的이거나 自己中心的 自己愛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Walser에게는 경제적 열등의식과 자부심 상실의 상처가 어린 때부터 계속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괴물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상처는 人生을 그의 경험과 고통인 自負心 喪失의 角度로서만 보게 하고, 그 안경으로 본 中庸의 心情을 그의 경험을 가지고 간파하여 세밀하게 분석 묘사하게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人生태도와 생활능력이 썩 부족했던 Walser의 부친도 님몰래 갈쓰는 습작을 통하여 돌파구를 모색한 듯하다. 그러나 그는 여관영업에서 지나친 경쟁의식과 위협을 느껴, 어린 아들로 하여금 여름마다 자기 마을의 다른 여관들을 기웃거리면서 투숙손님들의 숫자를 몰래 탐지시켰다고 한다. 그것을 아는 것이 마치 여관경쟁을 위한 경쟁의 수단이나 되는 것으로 알았다. 이것이 어린 Walser의 마음을 몹시 억압하고 비굴하게 하고 비뚤어지게 했던 큰 요인의 하나였다. Walser 小說의 主人公들도 과도하게 비뚤어진 직업경쟁의식으로 正常的인 人生의 가치있는 삶의 길을 알지 못하고 失敗의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고 있다. 겨우 Walser의 後期作品에 와서 조금 희망적인 方向 전환이 始作된다.

Walser는 1951年 Tübingen大學에서 F. Kafka에 대한 論文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論文題目은 “한 形態敘述”이다.²⁾ 1955년에 Walser의 첫 단편집 <Ein Flugzeug über dem Haus>가 발간되었고, 1957년에는 첫 小說인 <Ehen in Philippsburg>가 나왔다. 이 作品들에 대한 서평은 한결같이 부정적이며 거부하는 내용의 것들이었다. 批評家들은 Walser를 ‘카프카—도망자’로 단정했다. 실제로 Walser가 카프카의 영향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창작 세계를 열기까지 약 10年の 세월을 必要로 했다고 한다. 그 以後에 나온 그의 作品들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비평은 거의 없었다. 1976년에 발표된 小說인 <Jenseits der Liebe>와 1978년에 나온 短篇인 <Ein fliehendes Pferd>에 관한 가장 냉담한 비판의 글중에서 Marcel-Reich-Ranicki의 글만 여기에 소개해둔다: Walser의 소설들은 “하찮은, 나쁜, 보잘것 없이 천한

2) M. Walser: Beschreibung einer Form. Versuch über Fr. Kafka, Tübingen 1951.

小説이다. 이 책은 단지 한장, 아니 한 페이지라도 읽을 가치가 전혀 없다.”³⁾ 1970년에 Walser는 공산주의로 전향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난, 비판하는, 즐겨 큰 소리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끼었다. 자본주의 경제나 정치에 대한 비판의 소리와 함께 그의 드라마와 논설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 傾向을 비평가들이 논평하기를, Walser가 갑자기 공산주의로 전향함으로써 많은 독일 연방국의 知性人들의 流行에 밀접하게 동참한 것으로 보았다. 이같은 變化를, Walser가 文學으로서는 더 前進해 나가지 않으려 하여 계급 투쟁의 バリ케이트를 하나의 매력적이고, 대부분의 경우같이, 氣分 좋은 정착지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Walser의 정치적 기사들 중에서도 <아우슈비트즈—재판의 비도덕적인 문서에 대한 경고> 라든가 <베트남에서의 美國人의 戰爭> 등은 東獨에서까지도 인정, 찬사를 받았다. 1969年 東獨의 잡지 <Neues Deutschland>에 실린 Walser에 대한 칭찬의 글은 다음과 같다: “Walser는 Bonn정치의 위장된 시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人本主義的인 作家中 한 사람이다.” 1963年 발표된 연극 <Eiche und Angora>는 東獨의 Chemnitz에서 상연되었는데, 그에 대한 비평은 Walser가 兩者택일을 표현할 줄을 모르며, 또 전혀 긍정적인 人物을 묘사하고 있지 않음을 탄한 것이었다.

50年代와 60年代에 쓰여진 作品들은 前期의 것으로 묶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모든 作品들이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결코 변화될 수 없다’ (ein Mensch, wenn er schon einmal geboren ist, kann sich nicht mehr ändern)는 Walser의 人生觀에서 쓰여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문학의 역할이란 文學을 통한 계몽이다. 즉 피착취 계급인 노동자 무산계급이 문학을 통해서 비판의식을 깨우침으로써 혁명적 투사로 변화하게 되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立場에서 볼 때, Walser의 前期 作品들이 東獨에서 각광을 얻지 못함이 당연한 것이다. 세 작품 <Eiche und Angora>와 <Überlebensgroß Herr Kott> 및 <Der schwarze Schwan>에 대하여 東獨의 저명한 文學史家이며 教授인 Werner Mittenzwei는 Walser가 ‘체념과 반항 사이의 갈등’을 묘사한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西獨에서는 Walser 作品中에서 無害한 부부애기를 테마로 삼은 두 作品 <Die Zimmerschlacht>와 <Ein fliehendes Pferd>만이 私生活小説流의 베스트셀러로 손꼽힐만큼 많이 읽혀진 적이 있다. 그런데 드디어 小説 <Das Einhorn>과 <Seelenarbeit>는 Max Frisch와 어깨를 겨누면서 現代作家中에서 人間의 私生活의 영역을 가장 민감, 정확하게 파헤친 小説로서 호평을 받았다. Walser는 반쯤은 예술가로서 반쯤은 자연과학자로서 에로틱과 해부학, 부부생활과 가족생활, 知性問題와 心的問題들을 대담하게 실험하여 정밀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Walser를 사람들이 ‘道德家’(ein Moralist)로 칭하였지만, 정통적인 의미에서가 아니

3) “Ein belangloser, ein schlechter, ein miserabler Roman. Es lohnt sich nicht, auch nur ein Kapitel, auch nur eine einzige Seite dieses Buches zu lesen.” Marcel Reich-Ranicki: Jenseits der Literatur, In: Frankf. Allg. Zeitung, 27. März 1967.

고 다만 간접적인 方法에서 비양심적인 것과 아첨과 亂婚의 테마들을 作品을 통하여 의식적인 분석의 바탕으로 삼았다는 뜻에서 도덕가라고 보아 줄 수 있다는 평이다.

H. Böll과 함께 Walser는 中流계급출신으로서 독일사회에 作家로서 上流層으로 올라간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다만 자기의 出身계급인 중류시민들의 생활을 그들의 作品의 對象으로 삼은 것이 눈에 두드러지는 경향의 하나이다.

Walser는 그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G. Grass와는 반대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끝로써 하고 있다. Walser는 作家가 言語밖에서 행동하면 아마츄어가 된다고 반대하였다(Schriftsteller handeln in der Sprache, versuchen sie sonstwo zu handeln, werden sie Dilettanten). 만약 作家나 어떤 新聞이 한 정당에 속하게 되면, 그들의 言語는 통속어(Jargon)가 되어버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돕기 위해서 환자의 침대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비평을 위해서는 거리를 확보함이 지당하다고 주장한다. Walser는 비록 정치사회적인 참여작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지만, 결코 조언자는 못된다는 비평을 받고 있다. 상황의 변화와 건설을 위한 自身の 새로운 착상이 없다. 이 點에 관해서 Walser는 〈作家를 위한 한 의무과목으로서의 참여〉라는 제목의 한 강연에서 自己변명을 하고 있는데, 作家들이란 아무 것도 더 잘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코 助言者는 아니라(Kein Ratgeber)고 주장하였다. 다만 함께 언론에 참여하며 말참견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배자들의 비리와 착오를 비난하는 소리에 참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조언 없는 비난은 부정적인 것이다. 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 조언자가 될 수도 없으면서 단순히 비평을 위한 公衆의 소리가 되려는 것은, 역시 약자로서의 Walser의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려는 한가지 방책이라 하겠다. Peter Weiss와 나란히 Walser는 東獨에서 가장 유명한 西獨作家로 손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독작가들 중에서는 독일문화원이 주최하는 강연에서 가장 많이 활약하는 한 사람이기도 하다.

70年代에 와서는 Walser의 人間觀이 변했다. 그때까지 지속됐던 人間性 變化可能性의 부정을 철회하고, 人間의 自己變化를 인정하는 소망을 그의 作品에 그렸다. 이 事實로 Walser는 한 新聞紙上에서 自己의 三部作 小說의 主人公인 Kristlein과의 이별을 알렸다. 그곳에서 Walser는 고백하기를 “글을 쓰면서 스스로 변하는 사람이 作家다”⁴⁾라고 했다. 그렇다고 作品을 통하여 他人까지도 變化시키지는 모른다고 한다. 이 變化로써 70年代以後의 作品들을 Walser의 後期作品으로 규정할 수 있다. 後期作品中에서 성공작으로 인정받은 두 편의 소설은 1972년에 나온 〈Die Gallistl'sche Krankheit〉와 1979년 作品인 〈Seelenarbeit〉이다. 이 作品들으로써 Walser는 S. Freud와 K. Marx를 교묘하게 결합시킨 心理的一政治的 作家(ein psycho-politischer Schriftsteller)라는 평판을 받으면서, 미로소 作家로서 자리를 굳

4) “Wer sich schreibend verändert, ist ein Schriftsteller.” M. Walser: Abschied von Kristlein, In: Die Zeit, 13. März 1981.

히게 되었다. 이 論文에서는 이 두편의 代表作을 中心으로 Walser의 作品을 分析하고 Walser가 묘사한 人間像을 고찰하기로 한다.

Walser가 수상한 文學賞들을 여기에 소개해 보면, 1955年 <47그룹賞>, 1962年 <H. Hesse 賞>, 1962年 <G. Hauptmann 賞>, 1965年 <Schiller기념賞>, 1967年 <Bodensee 地方文學賞> 등이 있다.

Ⅱ. M. Walser의 作家世界

Walser는 11歲인가 12歲의 어린 나이에도 글짓기를 좋아했다 한다. 틈만 있으면 詩를 짓는 것을 좋아해서 여섯 내지 일곱 권의 알팍한 詩集을 만든 적도 있었음을 H.L. Arnold와의 對話⁵⁾에서 Walser 자신이 밝히고 있다. Walser는 자신의 글쓰는 才能을 어려서부터 알고 즐겼던 사람이다. 成長하면서 詩分野가 아닌 小說과 드라마가 장기임을 알면서 詩作에서 돌아섰다. 1974년에 讀後記로 쓴 <作家란 누구인가?> (Wer ist ein Schriftsteller?)라는 제목의 글에서 Walser는 글을 쓰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자기에게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Walser 자신의 뼈아픈 경험이다. 그의 가장 큰 경험, 즉 그가 오래토록 벗어나기를 갈망 부심한 것은 억압된 自負心이다. 중류계층에서 태어나 남다른 생존경쟁과 열등 의식으로 인생에 실패한 부친의 삶에서 억압된 어린시절의 경험은, Walser에게 人生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게 짓누르는 손상된 自負心の 고통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바탕위에서 Walser는 길게팔과 잔 맑스를 읽고 作家의 存在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였다. 大部分의 作家들은 上流層에서 보다는 下流層에서 出生하고 있다. 그런데 下流層의 사람들은 그들의 子女에게 확고한 自己同一性을 부여할 自負心이 없다. 自己同一性 缺乏을 괴로워하면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손상된 것을 인식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同一性損傷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다. 사실주의 작가란 손상입히는 쪽에 대해서, 즉 加害者에 대해서 더 흥미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한다. 마치 헛바닥이 입안의 상처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자꾸 활게 되듯이, 事實主義 作家는 자기에게 손상입힌 對象을 가지고 일삼도록 강요당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런 작가는 자연히 自己를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손상입히는 힘을 더 쉽게 취급하게 된다 했다. Walser는 이같은 사실주의적 작가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와 反對便에서 있는 文人들을 Walser는 “詩人”(Dichter)이라고 명명한다. 詩人은 加害者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받은 自己고통을 분체삼는다. 그

5) “Ich wollte nichts anders tun als schreiben. Ich war damals—Ich war elf, zwölf, als ich anfang mindestens sechs, sieben solche Bändchen mit Gedichten fabriziert, habe mich dann ununterbrochen— wann immer ich Zeit hatte— mit diesem Handwerk beschäftigt...” H.L. Arnold: Gespräch mit M. Walser, In: A. Waine: M. Walser, Autorenbücher 18, München 1980, S. 18.

런데 詩人이란 自己苦痛을 우주적인 고통으로 용해, 상승시킨다고 했다. 이같은 우주적 자기손상이란 더 이상 지상적인 것이 되지 못하녀, 따라서 수정할 수도 變化시킬 수도 없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이같은 고통이란 죽음과 결부된 것으로서 30年마다 새롭게 새각도에서 표현되고 노래되어야 하는 성격의 것으로 보았다. 이 부류에 속한 文人의 한 사람으로 Gottfried Benn을 例로 들었다. Walser는 Benn을 論評하기를, 그는 다만 한 세대에게와 한 계급에게는 一流詩人으로서 인정받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의 作品들은 그에게는 한갓 流行歌 텍스트(Schlagertext)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Walser는 完全한 無神論者다. 그 本質에서 먼 그의 宗教觀과 기독교관은 다음과 같다. 宗教와 童話의 作家란 한 個人이 아니라 한 集團이다. 宗教란 否定的인 經驗에 대한 集團의 대담에서 만들어진 것 以外에 아무 것도 아니다. 神의 存在란 지금까지 한 集團의 作家인 人類가 만들어낸 가장 偉大한 人物이며, 人間보다는 人間事情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 낸 영웅이다. 그러나 神은, 人間の 存在條件에서는 直接的인 해답은 없음을 증명해 주는 허구적 영웅(Fiktionsheld)이다. Walser에게는 이같이 神은 絶대로 完全히 不在하며, 그 때문에 人生의 끔찍한 事情들은 直接的인 해결방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직접적으로 묘사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 때문에 Walser의 主張에 따르면, 人生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直接的으로 表現하려는 모든 시도는 거짓된 긍정으로 나갈 뿐이다. 다만 경험을 통해서 연마된 허상으로서 그 근사치가 표현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사적으로 볼때에 사마니즘이나 모계중심사회에서는 한 集團의 人間들이 그들의 사회를 이끄는 신적개념을 만들어 내었지만 기독교, 불교, 마호멧교 등등의 종교는 집단에 의해서 창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옳은 靈感에서 나왔든지 잘못된 靈感에서 나왔든지간에 한 個人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특히 기독교는 人間이 本性的인 宗教心으로써 神을 찾는 行爲가 아니라, 하나님쪽에서 罪로 말미암아 혼돈과 고통가운데 해매는 人間을 찾아와서 상실된 하나님과의 關係를 회복시켜 주신 계시 종교이다. 絶대진리와 絶대義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自己中心的이고 相對的인 個人主義의 갈등과 분열의 人生에서 온갖 해결과 해답을 얻으며 소망과 기쁨으로 人生을 감사한다.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Walser가 人生에서 그 어떤 絶대적 해답을 알 수도 없거니와 이 혼돈된 人生事의 眞像을 바로 파악할 수 없다고 主張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Walser는 킬케골과 K. 맑스를, Hegel을 한 애비로 모신 두 아들이라 칭하고, 그 중 한 사람은 行爲를, 다른 한 사람은 忍苦를 변증법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Walser 自身은 이 두가지를 겸하여 所有하려고 한다. 作家란 變化慾求가 있음을 自己와 自己결함을 통하여 알고, 이것을 제시하는 者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니까 作家란 歷史의 可能性에서, 아니면 歷史에 대한 허구의 可能性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한다. 그런데 Walser 自身은 이 歷史란 단순히 한 허구(Fiktion)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無神論者들이나 共產主義者들처럼 人間存在

를 단순히 意味없는 一時的인 存在라든가 단백질의 고기덩어리로 된 우연적인 存在로 보고 싶지는 않다고 한다. 비록 허구일지라도 歷史를 창조해가는 存在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日常生活의 無意味한 試鍊과 고통을 당하면서 해결도 대답도 모르면서 어쩔 수 없이 뜻있는 허구를 主張해야만 한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노력의 일이라고 말한다. 意味없는 人生을 意味있는 것인양 허구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은 人生의 意味로 본다면, 거짓위에 세워진 人生이다. Walser의 人生은 그의 人物들처럼 참으로 암담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각도로써 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alser에 依하면, 作家란 自己의 正常的인 不確實性和 同一性이 희박함에 대해서 어떤 모험적인 긍정으로써 보상받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을 소유한 存在라고 말한다. 이 얼마나 모순되고 자가당착의 사상인가. 作家가 發見하고 表現하는 西歐의 몰락이라든가 부녀자들의 신체적 정신박약성이라든가, 精神的 삶의 한 形態로서의 Lübeck市라든가 하는 것들은 作家도 말참견을(mitreden) 하고 싶기 때문이라 했다. 이런 여러가지를 통해서 Walser가 글을 쓰는 目的은 한편으로는 글쓰는 行爲를 통하여 스스로가 變化해 가기 때문이고, 또 한편에서는 종류층 出身 때문에 갖게된 것이라는(?) 상실된 自負心の 보상을 얻기 위함이다. 이제 Walser는 世上 人生삶의 作家라는 정신적 上流층에 올라서서 비록 허구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歷史창조에 지도적인 입장을 얻어 말참견을 하게 됨으로써 상실된 自負心을 보상받는다.

Walser 小說들의 특징은 특별한 얘기도 아니며, 주된 얘기의 줄거리가 뚜렷한 것도 아니며, 부주인공이 거의 없다시피하다는 것이다. 잡다한 人物들의 잡다한 인생얘기들이 정리된 한 視點에서 서술되어 있지 않고, 여러개의 작은 얘기들이 서로 얽히고 섞여서 병렬되어 있다. 그 때문에 그의 小說은 읽은 후에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다. 主人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Walser 自身の 말 그대로 어떤 것도 구상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의 作品들은 다만 體驗된 경험들의 연상축적(Assoziationsansammlungen)에서 생기는 그런 것이다. Walser 小說의 내용은 한결같이 모두 外部환경에서 경험하는 人物들의, 自負心을 상실한 不安하고 억압된 自意識反應의 意識記錄이다.

이같은 人生觀과 世界觀과 文學觀을 가지고 글을 쓰는 Walser의 作家行爲에는 言語가 作家의 作業素材가 된다. 言語속에 作品소재의 發見이 있다. 意識을 言語創造的으로 表現하려는 시도가 Walser의 作品을 구성한다. ‘言語안에서의 예술’(Kunst in Sprache)이 그의 文學을 구성해 간다고 말했다. 1960年 Hölderlin 誕生 200週年 紀念일에 쓴 글에 담긴 Walser의 告白은 그가 15歲의 少年으로서 Hölderlin에게서 받은 영향이 너무나 지대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Hölderlin 영향의 중대성은 바로 言語의 역할, 즉 중계의 언어기능을 배운 그것이다. Walser는 Hölderlin의 고유한 매력을 그의 言語創造라고 했다. Walser에게는 Kafka의 영향도 막대한 것이었다. Walser는 Kafka를 ‘절대적 도덕가’(absoluter Moralist)라고 칭했다. Kafka에게서 배운 作風은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향하는 언어경향과 반

투명적인 것을 시도하는 것과, 現實과 非現實 사이의 흐름으로 나가는 발단, 諷刺로 向하는 발단 등을 들 수 있다. Walser 小説의 始作도 끝도 없는 文學形式을 사람들은 또한 Kafka 영향으로 지적하고 있다. Walser는 하나의 정신적 고향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곳은 Walser의 실제 고향인 알레만 지방의 言語와 환경이다. Proust研究가 Walser에게 끼친 영향은, 일인칭화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小説(Halbzeit) 以後부터 계속된다. Walser의 作品은 그 自身の 경험에서 생겨난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좁은 의미에서 자서전적인 것은 아니다.

Ⅲ. Martin Walser의 人物들의 一般的 特色

Walser의 小説들이 人間精神內面의 상황묘사이며 人間의 意識묘사를 그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부합해서, Walser의 人物들은 그 외모나 行爲가 오직 그들의 內面을 묘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그 범위내에서만 묘사되어 있다. Walser 소설속의 社會像도 파노라마로서 나타나 있지 않고 분리된 부분인 것 같고, 小説속의 人物들도 사실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림자같다. Walser의 小説엔 하나의 짜인 世界나 社會像이 없는 것처럼 그의 人物들은 다만 그들의 어떤 정신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만큼만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言語를 통해서 과정들을 보여주려는 Walser의 소설창작의도와 부합한다. Walser의 人物들은 Kafka의 人物들처럼 회곡작법적으로, 기능적으로 파악되어진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Walser의 人物들은 Kafka의 인물들보다 主人公들까지도 意識의 社會化過程을 묘사하기 위한 기능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Walser 自身の 主張처럼 ‘그는 부주인공을 모른다’(Ich kenne keine Nebenfiguren). Walser는 한 신문기자와의 면담에서, 그는 自身과 그의 작품의 人物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⁶⁾ 대부분의 사람들이 自己를 표준으로 삼고 있듯이, Walser도 作家란 결코 조인자가 아니며, 그들은 아무 것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했다(Die Schriftsteller sind keine Ratgeber. Sie wissen nichts besser.). Artur Joseph와의 對話에서 Walser는 自己의 서술태도(Schreibhaltung)는 결코 논박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재미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모든 가능한 것을 위한 방어(Gegenwehr)라고 말했다. Gudrun Uhlig는 Walser가 묘사한 人間像들을 하나의 추상화라고 부를 수 있겠다고 논평하면서, Walser의 人物들은 너무 높이거나, 잘못 묘사되어 있고, 왜곡되고 일그러뜨려져 있다고 말했다. J.W. Preuß가 그의 作家論에서 Walser의 人物들을 論評하였듯이, Walser는 그 自身の 말과 같이 경험현상의 바탕위에서 人物들을 만들어 내면서 창작가로서 그의 人

6) "Ich will nicht den Anschein erwecken, daß ich od mein Held es besser wüßten". In: J.W. Preuß: M. Walser, S.10.

物들에 연민을 갖고 있으며, 비록 그들은 성격적 결함이나 아직도 지배하는 도덕율에 비해서 큰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나쁜 눈길을 보내지 않으며, 저주하지도 않으며, 그들에 대한 풍자도 부드러우며, 어디에도 날카로운 비평적인 눈초리가 없다. 作中人物들에 대한 Walser 自身の 心情을 다음의 글에서 알 수 있다. “나의人物들은 항상 마음에 든다. 혹시 바보스럽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나는 나쁜 人間을 결코 만들어 낼 수가 없다. 天性的으로 그들은 도덕적으로 선하다. 다만 때로 연약하고 환경에 지배받는 것뿐이다.”⁷⁾ 과연 Walser의 그의 人物에 대한 이같은 평가에 우리가 동감하게 될 것인지, 그의 作品 안에서 人間像을 분석, 평가할때 언급하기로 한다.

Walser의 人物들은 行動派가 아니다. 그들의 문제는 모두가 한결같이 자본주의 국가체제가 가진 기능사회제도, 즉 업적으로써 사람을 평가하는 체제에서 自己의 能力보다 더 유능해야만 사회의 인정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상부층에 올라가야만 비로소 自負心과 自己價値를 갖게된다는데에 있다. Walser의 작품에는 이같은 가치규범아래서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理由에서 열등의식에 억눌리고 상처받은 自意識으로 고통받는 그런 人間들이 묘사되어 있다. 즉, 이같은 思考方式과 感情과 意識이, 업적경쟁의식으로 自己才能以上으로 지나치게 강요받는 삶의 강박감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內面像이 묘사되어 있다.

Walser의 人物들이란 한결같이 자기환경에 대한 관계의 와해에서 유래하는 自己不確實性을 안고 고민하고 있다. Walser의 人物들의 一般的 特色은 Walser 自身처럼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고, 그리면서도 고독과 공동생활의 中間地域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결같이 극단적인 利己主義와 自己愛에 사로잡혀 있다. 1960年代까지의 Walser의 人物들은 現在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극도로 利己主義的이며 自己愛가 지나쳐 병적이어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은 전혀 없는 人間像이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도 못하며, 남과 어울려서 교제하며 즐길 수도 없으며, 환경에 적응하기가 심히 곤란한 병에 걸려 있다. Walser의 人物들은 한결같이 자기환경에 대한 파괴된 관계에서 유래하는 自己不確實性을 안고 고민하고 있다. Walser의 人物들은 Walser 自身처럼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면서도 自己밖에 사랑할 수 없는 고독에 빠져서 남과 협동하는 공동생활을 택할 능력이 없다. 겨우 그 中間地域을 피난처인 양 찾음을 해결책으로 택하는 사람은 人生에 희망을 맛보게 된다. 1960年代까지는 Walser의 人物들은 現在의 政治的·社會的 문제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한 個人이 自己自身에게서 出發해서 自己自身에게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귀착하고 있다. 그러나 70年代以後의 人物들은 이 世上을 적대시하는 立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 새로운 社會, 즉 친절하고, 평화스럽고 보

7) “Meine Figuren sind immer sympathisch. Vielleicht klingt es dumm, aber ich kann keine schlechten Menschen zeichnen. Von Natur aus sind sie ja moralisch gut. Nur schwach manchmal und durch die Umstände gezwungen.”

상욕구가 없으며 경쟁도 지나친 기대도 없으며 이기주의가 지배하지 않는 사회를 찾고 있다. 이같은 Walser의 變化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전제되는 것은 공동생활의 강조이다. Walser의 人物들은 大部分이 中流級의 出身들이며, 이들의 직업은 의사, 신문기자, 작가, 출판업자, 소개업자, 설계사 등등 두뇌를 사용하면서 자기노력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과 하류계급의 운전사, 하인 및 고용인들이다. Walser의 人物들은 그 외모를 가지고 우리에게 實物같이 다가오지 않으나, 그들의 內的意識과 생각들로서 오랜 지기처럼 그들의 결함을 살살이 알도록 제시, 묘사되어 있다.

Ⅳ. 小說 <Die Gallistl'sche Krankheit>와 <Seelenarbeit>를 中心으로 한 人間像 研究

Walser 小說의 人物들은 各者의 相異한 職業전선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욕망과 삶의 비전 성취에 失敗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過去를 회상하면서 중류층계급의 삶의 現實을 분석, 진단한다. Walser의 人物들은 크게 그들의 社會的 身分을 가지고 分類하면, 두 種類로 區分되는데, 그 하나는 고용주에게 종속된 사람이고 또 하나의 타입은 知性的 職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Walser의 가장 방대한 三部作 小說인 <Halbzeit> 1960年, <Das Einhorn> 1966年 <Der Sturz> 1973年의 主人公은 Anselm Kristlein이다. 그는 직업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와 사생활의 요구로 가득찬 現實生活에 얽매어 있다. Anselm은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갖는다. 처음엔 그에게 수입을 가져오는 여러 품목의 생활필수품을 파는 장사를 한다. 다음엔 광고업을 해본다. 第二部作에서는 作家로서 등장하며, 第三部作에선 여관업 지배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972년에 발표된 小說 <Die Gallistl'sche Krankheit>, 즉 '가리스틀의 질병'의 主人公은 Josef Georg Gallistl이다. 그의 직업은 作家인데, 20年의 세월이 지난 40歲가 된 時點에 와서 그의 성취능력은 극도로 바닥까지 이르게 된다. Gallistl이 자신의 정신과 심신상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해 보면서 자신의 病的 原因을 찾아 기록한 것이 곧 이 小說이다. 그는 自己病的 이름을 自身の 姓氏를 따서 '가리스틀 질병'이라 칭했다. 가리스틀의 見解로는 自己病的 原因은 그의 才能以上으로 不當하게 要求되는 자본주의 경쟁사회체제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낙제할까 두려워서 학교에서 5等안에 끼여 있으려고 안간힘을 다한다. 그러면서도 그때에는 그가 5等안에 들만큼 實際로는 實力이 없다고 간주하여, 그 事實이 폭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마유놓고 사귀지도 못한다. 그는 自己實力以上을 행사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수없이 많은 下落의 움직임(nur eine von wirklich unzählig vielen Abwärtsbewegung S. 68)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가속도가 붙어서 人生의 바닥까지 내려갔으며, 쓰레기와 오물속으로, (in Dreck und Scheiße S. 69) 기쁨과 구토 등등의 속으로(Öl, Ekel, undsoweit S. 69) 하락한 것

이라 한다. 이같은 몰락감정은 거의 Anselm의 감정 表現과도 同----하다.⁸⁾ 그의 몰락을 향한 삶은 고립과 의지박약, 의욕상실과 좌절, 실패한 상실된 自己同一性과 自負心을 초래했다. 그러면서도 가리스틀은 이 心的이고 精神的인 失敗의 原因을 다만 사람을 그의 機能을 위주로 취급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귀착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原因의 더 근본적인 뿌리는 가리스틀의 왜곡된 人間觀과 人生觀 自體에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가리스틀의 失敗原因의 하나는 그의 人間價値의 척도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역량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가리스틀은 돈이 없이는 自負心을 가질 수 없는 그런 類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自己自身이 되기 위해서, 그가 必要한 돈을 벌기 위하여 일을 한다고 했다(Ich arbeite, um das Geld zu verdienen, das ich brauche, um Josef Georg Gallistl zu sein. S. 22). 또한 다른 대목에서는 그가 증오로 뜨거워 있는데, 이 증오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위하여 돈을 벌려고 한다(Ich werde Geld verdienen, daß ich mir den Haß leisten kann. Mir wird warm vor Haß. S. 40)고 말한다. 가리스틀은 남들과 다르게 특별히 他人의 贊定을 必要로 한다. 이력저녁 벌어드리는 돈이 그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認定 획득의 형태라 한다(Ich brauche viel Zustimmung. Das Geld, das ich so und so verdiene, ist die einzige Form der Zustimmung, die mir zuteil wird. S. 23). 人間價値와 바른 소리를 담은 그릇으로서의 人間에게 그래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人間良心의 선한 소리와 人間生命의 존귀함과 他人을 爲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人間만이 가지고 있는 참 人間됨의 가치는 어디로 가버렸다는 것인가? 가리스틀 질병의 또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친 自己愛이다. 남을 위해 자신을 줄 수 없는 무섭도록 自己中心的인 利己主義이다(Ich liebe mich vielleicht sehr. S. 24). 그는 단지 自己自身에게만 관심이 있고, 自身에 대한 關心은 이제는 그를 질식시킬만큼 키비렸고, 自己를 위한 關心앞에서 다르게는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한다(Ich interessiere mich nur noch für mich selbst. ...Aber mein Interesse für mich ist in einer Weise gewachsen, daß es mich jetzt bis zum Ersticken ausfüllt. Ich bin bewegungslos vor Interesse für mich selbst. S. 38). 가리스틀이 가장 즐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일이다(Ich denke eben am liebsten an mich selbst. S. 48). 自己만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랑과 사회의 관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人間之事이다. 그리고 그는 가리스틀은 눈물짓고 자기는 ‘단독자’(Einzelfall S. 80)라서 ‘국외자’라고 고독해 한다. 그는 作家이면서도 글을 쓰는 것 같지도 않다. 그는 움직이고 노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조반먹은 後에 그는 더 일을 할 수가 없다. 곧 피로감을 느낀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기를 원한다(Ich möchte, daß es mir besser geht als den anderen. S. 17). 극도로 노동을 싫어하면서

8) vgl. M. Walser: Der Sturz, S. 270. "Es geht abwärts. Fast ununterbrochen abwärts. Wir werden unterwegs sein, bis wir den tiefsten Punkt erreicht haben werden."

불로소득으로 남보다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엇을 바르게 성취할 수 있던 말인가? 가리스틀이 가장 즐기는 것은 그의 아주 예민하게 발달된 청각으로써 거미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 일이다. 그가 즐겨 되고 싶은 것은 배우다. 왜냐면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기 때문이라 한다. 만약 저녁에 T.V.에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의 생애에는 파국이라 한다. 탐정소설의 얘기라든가 다채로운 女子들이라든가 달리는 自動車들 등등 그런 볼 것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스럽겠느냐고 한다. Walser처럼 가리스틀도 사실적 기록영화는 질색이다. 만약 T.V.에 볼 것이 없으면, 그는 어떻게 시간을 죽여갈 것인지 암담하다는 것이다. 6명의 고향 친구들은 그가 속해 있는 社會이다. 이들은 각각 그들의 직업명의 첫글자를 따서, 이름대신 A, B, C, D, E, F, 라고 가리스틀은 부르고 있다. 가리스틀은 그들과의 교제와 만남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만남은 상호경쟁과 시기로 갈등에 찬 것이고, 그들에게 증오를 느낄 때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얼른 눈을 감아버린다. 가리스틀의 마음의 또 다른 고백은 우리는 서로가 죽일 위험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는 누군가가 덮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한다고 한다(Wir sind in Gefahr, einander umzubringen. ...Ich wundere mich darüber, daß niemand eingreift. S. 79).

그 사람의 참모습은 그의 마음과 정신의 생각이다. 外形的으로 作家의 직업과, 大學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本體는 아니다. 가리스틀보다 더 참혹하게 타락된 心靈의 人間像은 드물 것이다.

이같은 人間像을 Walser는, 앞 章에 이미 言及했듯이, 本質上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 이라 했다. Walser는 결코 나쁜 人間을 묘사할 수 없다면서 그의 人物들을 항상 동정, 동감한다고 했다. 공산주의 사상의 작가인 B. Brecht도 이같이 타락한 마음을 지닌 人間像을 묘사하지는 않았다. 욕심쟁이요 무정한 농장주인인 '퐁틸라'는 술만 한잔마시면, 人間의 本性인 人情美가 거침없이 쏟아져서, 그의 미슴에게 '친구'라고 부르면서 우정을 부여주는 아름다운 속마음을 지닌 人間이다. 가리스틀의 모습은 앞에 나온 다른 Walser의 作品들의 人物들보다는 월등하게 나은 편에 속한다. 왜냐면 가리스틀은 이같은 자기모습을 질병으로 인식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小說 끝部分에 가서는 가리스틀이 공산당원인 Pankraz Pudenz와 사귀게 된다. 그와의 새로운 人間關係에서 自己愛 속에 폐쇄되어 있던 그의 마음이 共同 삶으로 문을 연다. 그는 판크라쯔의 友情을 즐긴다. 自己를 인정해 주고 공산당원들의 집회로 데려가려고 그의 집을 방문하는 판크라쯔가 自己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약간의 자부심을 회복한다(ein bißchen stolz S. 93).

이렇게 그는 자기가 인정을 받음으로써 自己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종사하는 행복감을 갖는다(Ich komme schon wieder zu mir. ...Ich habe das Glück, der Zukunft zu dienen. S. 95). 이제 이 世上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 이와 같은 필요성의 체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가리스틀은 공산당원이 되지를 못한다. 육체를 부리며 공

장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도보여행을 할 수는 없다 한다. 이 같은 그의 人間됨의 우스꽝스러움이 그 自身을 동료로서 그들에게 제공하지를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小說의 主人公들은 자기 삶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몰락으로 치닫는 그 以前의 作品들의 人間像들과는 反對의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가리스틀은 自己病의 原因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적 경제체제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自己를 共同團體의 一員으로만 간주하고 그 共同團體를 사랑하고 그것의 이익을 위해서 自己愛나 自己慾求를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변하지 못한다.

공산당원에 속한 판크라프와의 결속은 다만 그의 고립의 치료요법이 될 뿐이다. 다만 먼 곳에서 향수를 즐기게 하는 故鄉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결코 그 속에서 살고 그것을 위해 그것이 요구하는 제도의 규범을 위해 희생하고 땀흘리는 것이 그의 現實도 그의 삶도 되지 못한다. 가리스틀은, 이들과의 만남의 경험이 어릴 때에 크리스마스 때 느껴본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 곳에서도 맛보지 못한 하나의 공동의식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다. 그것은 잠깐 즐기고 지나가는 휴일같은 것에 불과하다. 가리스틀의 意識은 점차로 外部에서 오는 영향에 적극적인 反應을 보이기 始作한다. 그러나 그것이 自愛와 돈의 노예가 되는 질곡에서 해방시키지는 못한다. 그는 그 공동단체에 自己를 예속시킨 것도 아니다. 그는 공산주의 정당정치에 많은 다른 見解로써 批評을 加한다. 다만 Anselm과 反對로 Gallistl은 자본주의 사회의 축소판과 같이 취급, 묘사되고 있는 그의 옛친구들의 사회에서 받는 냉담과 자기 소외와 두려움의 감정의 징후를 이제 인식한다. 비록 그의 질병의 원인의 뿌리 깊은 근원은 간파하지 못했어도 自己 나름대로 自己病에서 거리를 두고 관찰하면서 약간의 새희망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社會制度和 여건의 變化는 人間삶의 變化의 하나의 要因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要因, 불가결한 要因은 못된다. 가장 경제적 사회보상제도가 잘되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自負心을 짓밟지 않을 것 같은 부자들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는 더 큰 人間本然의 要인인 나를 주고 너를 받아들이는 참 만남의 결여로 더 큰 고독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리스틀도 그의 피상적인 인식과 外部의 환경변화만을 가지고는 결코 바른 人間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껏 그가 원하는 것은 ‘단독자’요, ‘국외자’의 利己的인 自己愛의 영역과 共產主義 共同團體의 영역의 中間地點 정도를 선택함으로써 극심한 고립과 억압된 自負心에서 벗어나려고 努力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는 해도 지팡이를 잃은 장님이 절벽으로 떨어진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멸망과 절망밖에 없었던 Kristlein 三部作의 主人公들이나 그 以前 作品의 主人公들과는 달리 Gallistl은 약간의 未來希望의 옆길을 찾아가는 人間像이다.

1979년에 발표된 小說인 〈心靈作業〉(Seelenarbeit)의 主人公은, Walser의 다른 小說의 人物들처럼 Bodensee地方에 있는 한 회사 사장의 自家用 運轉手로 고용된 Franz Xaver Zürn이란 이름을 가진 中年 男子이다. Xaver는 小市民 階級 出身으로서 많은 것을 모험하거나

반항하거나 도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다. 그는 다만 生活의 보장과 직업의 보장과 感情的인 보장을 얻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환경과의 갈등에 대한 대결과 분석도 다만 그의 內部에서, 意識에서 행해질 뿐이다. 그가 겪는 精神的 苦痛은 조금밖에 밖으로 나타나지 못하며, 수치스럽고 염려스럽게 마음속에 감춰져 있다. 運轉手職業을 가진 人物은 Walser 小説에는 여러 곳에 등장한다. 〈Halbzeit〉에서는 약아빠진 自身의 物質的 利益만을 항상 열두에 두는 Bert란 이름의 男子가 있고, 〈Der Abstecher〉에서는 Bertold란 이름의 운전수가 나오며, 〈Das Einhorn〉에서는 딱할 정도로 외향적이고 약간 그르테스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Heini Müller라는 이름의 운전수도 있다. 그들은 모두 작품속에서 助役을 하는 것뿐이며 거의 종자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心靈作業〉안에서의 Xaver는 小説事件의 中心에 位置하고 있으며, 完全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Walser의 小説에서는 운전수나 하인이나 고용인으로 된 소시민 계급출신의 사람들의 무리와 사회적 지위나 사업으로써 사회의 상층에 속한 부유층의 무리가 대립되어 있다. 本 小説속에서는 이같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갈등이 어떤 사회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묘사된 것이 아니라 私的關係, 즉 自家用車 안에서 운전수와 주인과의 개인적 생활관계에서 조명되어 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사회적 위치로나 경제적 역량의 차이에서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車內空間內部에서 더욱 격심하게 나타나 있다. 운전수는 고용주를 일관을 맞대고 앉지 못하고, 항상 등 넘어 백미더러서 만나야 하며, 고용주는 운전수에게 인격적인 대화의 만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아무리 긴 一週間의 장거리 자동차 여행에서도 고용주 Gleize박사는 혼자서 글을 읽고 쓰거나, 잠자거나, 이어폰으로 그가 좋아하는 모짜르트의 음악을 들을 뿐, Xaver와의 同一한 時空을 함께 경험하는, 같은 人間的 次元의 대우나 關心을 보여주지 않는다. 여기에서 Xaver는 열등의식과 自負心에 손상을 받게 된다. Xaver를 그에게 취직소개한 사람의 추천 때문에 主人앞에서는 맥주 한잔도 마시지 못한다. 비록 그는 저녁마다 집에서는 한두병의 포도주를 즐겨 마시지만, Gleize 사장은 自己生命安全을 위해서 Xaver가 바로 술과 담배를 마시고 피우지 않으며 활쓰는 경기에서 우수한 경력이 있다는 거짓 추천때문에 그를 자가용 운전수로 고용했었다. Xaver는 이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自己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힘든 환경에 있다. Xaver도 Walser의 다른 主人公들처럼 必要以上으로, 아니 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대우에 민감하다. 운전 도중에 뒷자리에 앉은 고용주와 그의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對話하거나 깔깔거리는 경우에는, 마치 自己에 관한 것이나 아닌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마음이 不安해진다. Xaver와 Gleize 사이에는 뚜렷한 對峙關係가 心理的으로나 정치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즉 무능력과 권력, 종속과 독립, 소외감과 자부심의 대립현상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억압이다. Walser의 主人公들 중 이 소외당하고 열등의식에 억압당해 고통받고 있는 人物들에게서 그것은 항상 肉體的인 질병의 징후로서 나타난다.

Xaver의 경우 13年間の 긴 歲月 동안 의무에 충실하게 일한 결과, 이유 없이 배가 아프고 변비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Xaver는 그의 主人이 원하는데로 自己를 맞추어 고용살이를 한다. 그래서인지 心理的으로는 가위에 눌리는 꿈을 꾸고 강박영상들과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된다. 病院에서의 진단은 신경성질환이다. 이 진단때문에 Xaver는 Tübingen 病院에서 一週間の 종합진단을 받게 된다. 그전에 Xaver는 우연히 스위스에서 책 한권을 샀는데, 그것은 독일나치당원인 공장주의 자가용 운전수인 John Frey가 쓴 경험담이다. Frey는 그의 고용주의 마음을 짐차로 꿰뚫어 보게 되자 드디어 증오하는 것을 배웠다 한다. 이 책에서 Xaver는 사람이란 자기 立場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한 立場(einen Standpunkt S. 284)을 취해야 함을 배운다. 이 책의 내용이 無意識 가운데 Gleize에 대한 自己의 역할을 分析하게 한다. 처음에 Xaver는 Gleize 사장이 그의 病을 위해서 친구 의사에게 철저한 검사를 받게한 것을 人間の인 進질의 行爲로 이해한다. 그러나 Gleize가 그 自身の 生命安全을 위해서 그렇게도 철저하게 Xaver의 건강상태를 조사시킨 것을 꿰뚫어 보게 된다. 그러자 그는 Gleize의 自動車 속에 사서 모아둔 칼들을 생각해낸다. 그러자 지금까지 자기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自我感情(Selbstgefühl S. 170)을 갖게 된다. 비록 그것은 아직 그렇게도 미약하고 거의 의식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긴 하지만, 그는 결단코 누구 앞에서도 이 自我感情을 끈질기게 지켜나갈 것을 배운다(... wie wichtig ihm sein Selbstgefühl war, gegenüber allem, was sonst jemand über ihn sagen konnte. So schwach es war, nichts würde er zäher verteidigen, als dieses schwache, kaum mehr wahrnehmbare Selbstgefühl. S. 170).

나아가 Xaver는 진찰받는 도중에 그의 自尊心을 상승시켜 주는 이상한 경험을 한다. 의사가 Xaver도 함께 그의 내장과 위장을 기계를 통해서 진단하는 과정을 육안으로 보게 해준 것이다. 自己의 분홍빛 붉은 위장벽을 기계가 검진해가는 동안 그의 內部的 生동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그는 진지한 경건심을 느낀다(Xaver empfindet die innigste Andacht. S. 161). Xaver가 자신의 내장의 신비한 生命의 모습에서 받은 自己의 生命的 存在에 대해 가치를 느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人間生命의 존엄성 및 귀중함과 연결되지 못한다. 다만 소생하기 시작한 自己의 自負心의 生命을 깨달았을 뿐이다. 그런데 살아난 이 自負心이란 다른 生命에 대한 귀중함과 아무런 關係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지금까지 억압했던 强者들의 生命을 파괴하려는 살인적인 욕구로 나타난다(Er sehnte sich danach, etwas Vernichterisches zu denken. Nichts wäre ihm jetzt so angenehm gewesen wie die Vorstellung einer allgemeinen und völligen Vernichtung, durch die notwendigerweise die Sieger mehr getroffen werden würden als die Unterlegenen. S. 257). 참 自負心과 人間生命의 존귀한 가치를 모르는 Xaver는 오히려 그의 억압과 自我感情이 살아나자, 前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Gleize의 하녀인 Aloisia와 육체관계로서 간음을 즐기려고 시도한다.

또 Gleize 사장을 떼우고 달리던 장거리 여행에서 그를 칼로 찢러 죽여 없앨 생각을 품게 된다. 우연히 산기슭을 지나가게 되면서 Gleize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停車를 요구한다. Xaver는 칼을 손에 쥐고 어떻게 찢러 죽일 것인가를 머리로 궁리한다. 그가 생각해 낸 殺人方法은 참으로 끔찍하다. 먼저 뒤에서 다가가서 껌싸게 귀를 하나 베어낸 後 Gleize사장을 돌려 세워놓고는 입을 찢르고, 다음에는 생식기를 잘라내고, 여러번 찢러서 죽인후에 그의 코까지 베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번개같이 작정하고 침착하게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에 Gleize가 크게 방귀를 킂다. 이 소리에 Xaver는 흠칫 놀라면서 본능적으로 몸을 돌린다. 그 다음날 회사로 Xaver가 나갔을 때에 그는 Gleize의 여비서로부터 사장 자가용 운전수직의 해임장을 받는다. 해임 이유는 한번도 사장앞에서는 마셔보지도 못했던 그 백주마시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적혀 있다. 그가 대신 얻은 일자리는 집을 들어올리는 집게자동차의 운전수 역할이다. Xaver의 自負心이 잘못된 人間觀과 價値觀때문에 전에는 지나치게 남의 말과 인정받는 것을 가치로 알아서 너무 민감해져 自己內面的으로 自身의 마음과 精神이 억압받고 병들게 하더니, 그것에서 해방되자 이제 억압했던 者들을 잔인하게 살해함으로써 보상받으려는, 즉 他人을 向한 파괴의욕으로 바뀐것 뿐이다. 이 小說속에서도 Walser가 試圖한 人間變化와 自負心회복은 바른 人間觀과 生命의 價値를 모르기 때문에 결코 진정으로 희망적인 것이 못된다.

그러나 Walser 作品속에서는 어떤 外部的 要件이나 어떤 환경속에서도 아름다운 人間像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희생적인 母親像이요 아내像이다. 그들은 Xaver의 아내인 Agnes와 Kristlein의 아내인 Alissa와 Gallistl의 아내 Marianne이다. 이들은 아무리 男便이 돈을 벌지 못하고, 살림이 기울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새벽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며, 집안살림, 자녀양육 때로는 생활전선에서 돈까지 벌면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일편단심 희생의 봉사를 다한다. 결코 누구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요, 인정해주시기를 바라는 목적에서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들은 가정과 남편들을 지켜나간다. 이같은 아내像 앞에 Walser의 主人公들은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그들의 성적타락 생활도 결국 아내됨으로 돌아와서야 그나마 평안을 찾게 된다. Gallistl은 마지막에 그의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말한다. 그녀가 먼저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가 그녀를 지탱해 가겠다고 한다(...zuerst hast du mich gehalten, jetzt halte ich dich, ... S. 126). 人生을 인내와 희생과 사랑의 봉사로서 지켜나가는 이 아름다운 女人像은 Walser 自身이 겪은 카톨릭신앙에 충실했던 그의 母親에 대한 경험의 產物이다. 다른 한편에는 主人公들의 부도덕한 성적방탕의 對象이 되는 女人들도 있다. Walser의 女人像도 이같이 二種의 극단적으로 다른 人生觀과 價値觀 때문에 完全히 對照的인 다른 두 타입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V. 결 어

아무리 기능위주의 자본주의적 경쟁사회라 할지라도 바로 이 성취능력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반드시 他人의 칭찬이나 평가를 받기 위하여 自己能力以上으로 일하다가 억압받고 정신적 갈등과 불안에 빠지는, 쉽게 열등의식에 빠지고 소외의식 때문에 자부심을 손상받아 병적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대다수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Walser 作品內에서도 강인하면서도 희생적인 사랑으로써 가정과 사회에 봉사하는 女人들은, 손상된 자부심 때문에 人生을 망치려드는 그녀들의 男使과 같은 배를 탔고 꼭같은 환경의 시련속에서 꼭같은 종량을 만났지만, 完全히 다른 種類의 人生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Walser가 주장하는 경쟁적 경제기능사회의 제도가 이들의 不幸을 초래케하는 唯一한 조건도 充分조건도 못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人間에 대한 바른 價値觀과 人間生命의 존귀한 가치를 아는 그것이 오히려 병적인 열등의식과 파괴적인 自負心에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보호한다. 돈을 人間의 가치를 규정하는 척도로 보는 그런 物質萬能主義와 배급사상을 당연지사로서 받아들이면서 경제정치체제만 바꾸려 한다면 참 人格의 파탄과 함께 파멸이 온다는 것을 Walser의 主人公들이 깨닫지 못함이 아쉽다. 바른 人間觀과 價値觀이 없이는 결코 아름다운 人間像이 나오는 좋은 作品이 나올 수 없음을 통감했다. Walser의 作品은 한결같이 상실된 自己同一性 회복과 파손된 自負心 회복을 테마로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참 人間像과 참 自負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른 회복이 제시되지 못함이 역시 아쉬운 일이라 하겠다. Walser의 人物들은 社會的 身分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방종된 욕망을 충족시킬만큼 돈을 넉넉히 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며 속박되고 억압되어 비굴해지며 상처받고 상한 자부심으로 고통받는 그런 人間像들이다. 애초에 잘못된 人間觀의 척도로써 人生을 보고 분석, 묘사했기 때문에, Walser의 人物들의 생각과 욕망들은 엉마처럼 추잡하다. 人間됨이 무엇이며, 人間生命의 존귀함과 신비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속에서 헛되이 살아가는 그런 人間像들이다. 노동의 가치와 목적도 단지 돈을 벌기 위함이요, 육신의 쾌락과 자부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창조와 생명과 건설을 위한 노동의 참가치는 알 길이 없다. 이같이 참사람됨의 모습을 상실하고 매회, 파산해가는 人間像들을 우리는 당연히 同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가치와 방향으로 사는 이들을 같은 위치에서 同感, 同調할 수는 결코 없다. 오히려 Marcel-Reich-Ranicki의 견해처럼 Walser의 作品들과 人物들은 곁에 두면서 두번 다시 읽고 사랑할 마음을 결코 불러 일으키지 않는 그런 類의 것이라고 유감스럽게도 논평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된다.

Literaturverzeichnis

- M. Walser: Die Anselm Kristlein Trilogie. Halbzeit, Suhrkamp. taschenb. 684, 1981.
- M. Walser: Das Einhorn, suhrk. taschenb. 684, 1981.
- M. Walser: Der Sturz, suhrk. taschenb. 684, 1981.
- M. Walser: Die Gallistl'sche Krankheit, edit. suhrk. 689, 1974.
- M. Walser: Ein fliehendes Pferd, suhrk. taschenb. 600, 1980.
- M. Walser: Seelenarbeit, suhrk. taschenb. 901, 1983.
- M. Walser: Das Schwanenhaus, suhrk. taschenb. 800, 1982.
- M. Walser: Brief an Lord Liszt, suhrk. taschenb. 1183, 1985.
- M. Walser: Selbstbewußtsein und Ironie, edit. Suhrk. 1090, 1981.
- M. Walser: Wie und wovon handelt Literatur. Aufsätze und Reden, edit. suhrk. 642, 1973.
- M. Walser: Wer ist ein Schriftsteller? Aufsätze und Reden, edit. suhrk. 959, 1979.
- Klaus Siplewski (Hg): M. Walser, Suhrk. taschenbuch materialien St 2003, 1981.
- Anthony Wayne: M. Walser, Autorenbücher 18, München 1980.
- Heinz Ludwig Arnold(Hg): Text+Kritik. M.Walser, März 1983.
- Toachim Werner Preuß: M. Walser. Köpfe des 20 Jhts, Berlin 1972.
- Marcel Reich-Ranicki: Deutsche Literatur in West und Ost, Piper, München 1963.
- Heike Doan: Gesellschaftspolitische Aspekte L.M. Walsers Kristlein-Trilogie, Bonn 1978.
- Thomas Beckermann(Hg): Über M. Walser, Frankf/M. 1970.
- Ursula Reinhold: Erfahrung und Realismus über M. Walser, In: Weimarer Beiträge, Bd. 21, 1975.
- Werner Mittenzwei: Zwischen Resignation und Auflehnung, In: Sinn und Form, Bd. 6, 1964.

《Zusammenfassung》

Das Menschenbild im Werk M. Walsers

Tschol-Za Kim

In diesem Aufsatz ist das Menschenbild in den Hauptwerken Walsers untersucht. Im ersten Kapitel sind der kurze Überblick vom Lebenslauf Walsers und die allgemeinen Rezensionen und Kritiken über die Werke Walsers angegeben. Die meisten Kritiker sind der Meinung, daß sich bei Walser der Zwiespalt zwischen Resignation und Auflehnung zeigt.

Im zweiten Kapitel ist die Autorschaft Walsers untersucht. Walser ist ein politisch-gesellschaftlich Engagierter, der sich besonders S. Freud, K. Marx und F. Kafka als seinen geistigen Nährboden ausgewählt hat. Bei Walser ist das Hauptproblem das beschädigte Selbstbewußtsein, das ihn vom Kindheitserlebnis her lebenslang gequält hat, und daher mußte er das in seinen ganzen Werken variiert behandeln.

Im dritten Kapitel ist die allgemeine Charakteristik des Menschenbildes Walsers festgestellt. Walsersche Figuren stammen fast alle aus dem mittleren und niederen Stand des Volkes. Sie sind keine große Leute, die den Weltgang beeinflußt, und sie sind weder klug noch vorbildlich. Sie wissen nicht den richtigen Bahn des Lebens zu befahren. Das fehlt auch bei Walser selbst, wie er sich einmal geäußert hat: "Ich will nicht den Anschein erwecken, daß ich oder mein Held es besser wüßte". Walser beschreibt weder seine Städtebilder als Hintergrund noch seine Figuren realistisch. Er stellt sie allein nach dem seelischen Vorgang und der Bewußtseinsänderung dar.

Im vierten Kapitel sind seine Menschenbilder untersucht, besonders in seinen zwei Hauptwerken, nämlich <Die Gallistl'sche Krankheit> und <Seelenarbeit>. Die Figuren Walsers leiden alle unter dem Minderwertsgefühl und dem verletzten Selbstbewußtsein. Obwohl die Hauptfiguren in diesen beiden Werken die Befreiung von ihrem Leiden finden, richtet sich ihr neues Leben doch nach falscher Richtung. In der <Gallistl'schen Krankheit> findet ein Intellektueller namens Gallistl aus einem handlungsunfähigen und isolierten Zustand eine neue Beziehung mit einem Kommunisten. Dennoch hat er sich die faule Lebensgewohnheit nicht geändert. Er scheut sich vor der Körperarbeit und ist nicht fähig

zum Dienst der Gemeinschaft. Wegen seiner Selbstliebe und seines Egoismus sind seine Werke hart kritisiert worden. Marcel-Reich-Ranicki hat einmal folgenderweise über ein Werk Walsers geäußert: "Ein belangloser, ein schlechter, ein miserabler Roman. Es lohnt sich nicht, auch nur ein Kapitel, auch nur eine einzige Seite dieses Buches zu lesen." (In: Frankfurter Allg. Zeitung, 27. März 1967).

Wir sind zu dem Schluß gekommen, daß ein Autor ohne das richtige Bewußtsein über das Leben und den richtigen Wertmaßstab niemals die schöne Seele des Menschen trotz aller Not und Leid darstellen vermag. Obwohl Walser behauptet, daß seine Figuren immer sympathische und von Natur aus moralisch gut seien, und daß er nie einen schlechten Menschen zeichnen könne, finden wir leider unter seinen Figuren außer paar Frauenbildern nicht ein einziges Menschenbild, das man trotz aller Fehler und Schulden lieb haben kann.